

국무총리 모두말씀

-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, 8.4(금) -

- 제주도의 위력을 알겠음. 국무회의를 능가하는 규모와 높이가 이 자리에 이뤄졌음. 지금부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시작하겠음.
- 우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되신 박소현, 염미경, 홍성화 위원님.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락해주셔서 감사함. 많은 지혜주시기 바람.
- 저의 오랜 의정활동의 동료이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주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함.
-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했고,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임.
-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2년 됐음. 그 사이에 제주도 인구가 10만 명이 늘었고, 관광객이 3배로 늘었으며, 작년엔 경제성장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음.
- 그러나 아직도 과제는 있음.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고, 교통·주거·환경 등의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는 편임.
- 원희룡 지사님 같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계시니까 이만큼이라도 감당하시지,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을거라 생각함.

- 오늘은 그동안의 성과도 물론 다시 되돌아보겠지만 향후의 과제, 제주도의 비전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.

- 지금까지 있었던 다섯 번의 제도개선은 가볍게 개괄하고 오늘은 6단계 제도개선안을 논의해서 시작하는 그런 모임으로 하겠음.

- 제주도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 있는 두 개의 특별 행정기관입니다만, 제주도나 세종시나 각기의 특색을 살려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각을 함.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좋은 모델들을 제시해주기를 늘 기대함.